

Manufacturing in Consideration of Eco-friendly and SDGs

에코 · SDGs를 고려한 제품 만들기

佐野 正 / 사노디자인사무소

1. 세계 공통의 키워드

지구온난화에 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영향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제조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제조 시뿐만 아니라 소재의 시작이나 폐기의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미지하면서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 방향(vector)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올바른 국제연합이 발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기후, 식량문제, 교육 격차, 대기오염, 수질 오염, 에너지문제, 해양 마이크로플라스틱 등이 있다.

Eco(=ecological)를 더욱 확대한 비전으로, SDGs(=Su

[그림 1] SDGs는 17개 목표 · 169개 타겟으로 구성



[그림 2] 에코디자인의 4가지 수법

What's 4R?	
1_Refuse : 그만두다	가치관을 바꿔 이노베이션 디자인
2_Reduce : 줄이다	폐기를 줄이는 제조 · 낭비 없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3_Reuse : 재이용	반복 사용하기 위한 롱라이프 디자인
4_Recycle : 재자원화	재료로써 재사용하기 위한 소재 선택과 제법, 또는 처리를 염두에 둔 시스템 디자인

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의식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하나로도 배려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제조나 패키지에는 필수가 된다([그림 1]).

II. 4R의 추진

에코디자인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포인트도 상품이나 업태에 따라 다양한 수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 수법(4R)은 다음과 같다([그림 2]).

1_Refuse<2_Reduce<3_Reuse<4_Recycle

4R은 순서가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부하가 커진다. 중요한 것은 보다 작은 숫자가 붙은 행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III. 매력적인 에코디자인

제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연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경제 우선으로 결정한 제조 프로세스를 수정할 기회가 많아진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있고, 그것이 매력으로써 전달되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나 가공기술이 새롭게 개발되면, 한 번에 보급될 가능성도 있다. 동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례에서부터 다음의 키워드에 배려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효과가 산출되고 있다.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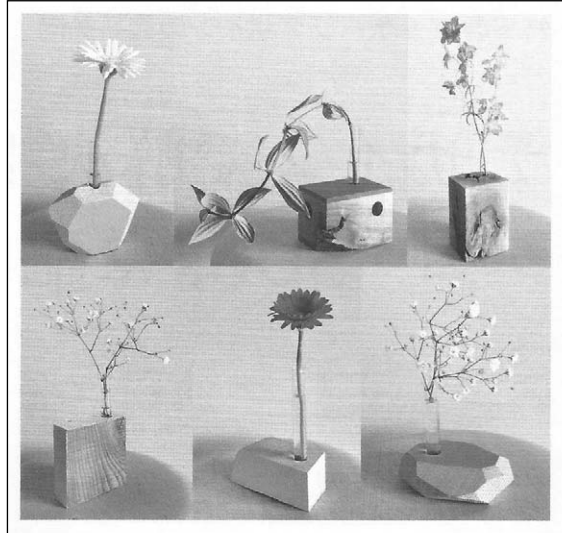
- (사용하는 책임) 우리들의 생활 시점에서
- (만드는 책임) 지속하는 제조업의 시점에서
- (버리는 책임) 물건의 가치라는 시점에서
- 어디부터 쓰레기인가?
- 에코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기대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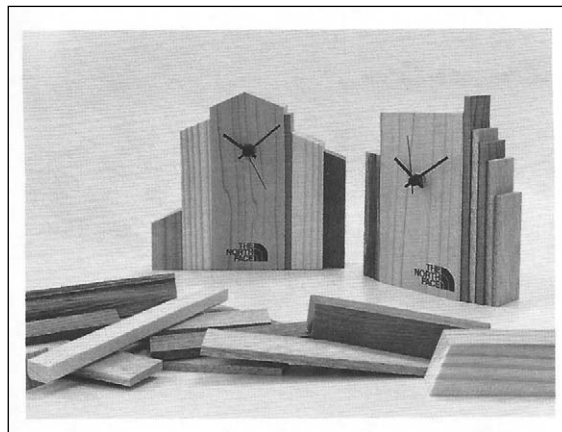
- 새로운 시장이 탄생
-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로 이어지다
- 향후 30년은 지속할 수 있는 제조

다음 장에서 에코로 매력적인 디자인의 일례를 소개한다.

[사진 1] 고목 조각을 초등학교생들이 자유롭게 제작



[사진 2] 기업의 환경 PR로써 에코디자인을 활용



[사진 3] 폐기한 소재도 디자인과 기술로 매력적 상품으로



IV, 에코 · SDGs 디자인 사례 1

: 폐재료나 단재(端材)를 Reuse · Recycle

1-A 고목 재채색([사진 1])

수십 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국산 목재를 재생해 생활에 색을 더하는 아이템을 제조하는 워크숍으로 실시.

1-B 폐재료 · 단재로 만든 탁상시계([사진 2])

THE NORTH FACE와 협동 개최한 에코 워크숍.

시간(나무의 연령)을 상상하면서 나무 조각을 자유롭게 접착, 오리지널 탁상시계를 만든다.

1-C Re-shibo([사진 3])

공장의 알루미늄 단재를 활용해 스피닝(spinning) 가공으로 완성한 꽃병. 그대로도 아름답지만, 부속품인 금속용 초크로 자유롭게 무늬나 문자를 넣을 수 있다.

계절의 모양이나 메시지 등 간단히 그려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즐길 수 있다.

[사진 4] '쿠션 산' 사용 시(위)와 사용 전(아래)



V. 에코 · SDGs 디자인 사례 2

: 일회용을 그만두다. 반복 사용. 에코를 즐기다.
Reduce, Recycle. Fun

2-A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완충재 '쿠션 산(Cushion San)' ([사진 4])

쿠션산은 선물의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쿠션산은 지금까지 일회용으로 사용했던 완충재의 가치를 바꾼 상품이다. 수송이 끝난 시점에서 쓰레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완충재를 버리고 싶지 않은 독창적인 조형으로 해 새로운 기분을 만들었다.

중요한 상품 · 선물을 확실히 보호하고, 받은 사람이 생각지 않게 웃게 만들며, 사용 후에도 반복 사용되는 새로운 타입의 완충재.

【에코디자인의 포인트】

- ① 반복 사용할 수 있다.
- ② 완전히 연결된 형상이기 때문에 제조 시에 재료 로스가 없다.
- ③ 사용 시에 부풀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사용 전 수송 시 공간 절감.

더욱이 소비자 아이디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2차 이용되고 있다. 도시락이나 소품의 세척용 스펀지, 유리창의 결로 흡수용, 방진을 위한 틈새용 등. 유머러스한 콘셉트의 완충

재는 에코에 배려하면서 선물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사진 5] 쿠션 산 리브스는 해외에서도 수상



2-B 쿠션 산 리듀스([사진 5])

2-C 리브스 티(Leaves Tea)([사진 6])

1장의 종이를 손으로 잘라 사용, 에코로지컬로 아름다운 완충재.


[사진 6] 리브스 티는 더욱 사용하기 쉽게 진화



앞에서 서술한 쿠션 산의 콘셉트와 같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는 독창적인 완충재를 종이소재로 실현한 에코디자인. 다양한 컬러로 계절감과 세심함을 선물할 수 있도록

특 했다.

저(低) CO₂ 가와사키 브랜드 인정, DIA 디자인 이노베이션 수상.

지난해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 리브스티 를 개발 · 발매 중이다. 앞의 디자인을 키워형상 검토하는 것으로, 간단히 자르기 쉽고 입체로 만들기 쉬워졌다. 



구독 안내

월간 'Converttech'

'Converttech'는 필름 · 시트(원반, 기능성 부여 타입, 다층화 타입 등), 금속포일, 종이, 판지, 기능지, 부직포, 합성지, 섬유, 강판, 탄소섬유 복합 시트, 박막 유리, 세라믹시트, 발포시트 등의 웹 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가공기술(컨버팅 테크놀로지)을 집중 조명하는 세계 유일의 컨버팅 기술 정보지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사무국

■ TEL : 02-2026-8655 ■ FAX : 02-2026-8660 ■ E-mail : kopa1991@daum.net